

6/1(수) 느헤미야 묵상 2

느헤미야 1:5-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방해꾼들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에게 있어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운 분으로만 여겨서도 안되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여겨서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속성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6-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자신과 자기의 가족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삶의 문제와 사건을 통과할 때 그것을 우연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로 거기서 영적인 묵상을 하고 또 각성의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학 1:4-5,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편,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회개한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과거에 지은 조상의 죄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비롯한 포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말 1:6-7,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의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의 사랑을 간구합니다(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비록 유다 민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대로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약속대로 구할 것은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그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경건한 종들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고 또 기도해주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전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또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드-베다니 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콜롬비아개혁신학교(보고타, 고석훈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